

금융기관의 핀테크 대응 추세와 우체국금융에의 시사점

김경기* · 홍진석**

2015년 상반기 핀테크 열풍이 한차례 지나간 후로 이제 핀테크는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핀테크를 기반으로 금융 혁신을 이루어 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핀테크의 성공은 금융기업의 독자적인 추진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비금융 핀테크 기업(스타트업)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 금융기업이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투자 확대를 통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의 핀테크 동향 및 글로벌 금융기업들의 핀테크 대응 전략, 아시아 주요국의 핀테크 사업 추진 전략, 핀테크의 본고장인 영국의 핀테크 발전 전략, 국내 핀테크 정책동향과 그에 따른 주요 시중은행의 금융 오픈 플랫폼 사업 방향 등을 되짚어 보고 핀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및 업무 환경의 변화가 우체국 금융 서비스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함께 우체국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I. 들어가며

1. 금융서비스 변화 배경

2015년 11월 11일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¹⁾’에 알리바바닷컴이 하루에 16조원의

* 우체국 금융시스템 ITO PM, (주)대우정보시스템 이사, kkkim@dis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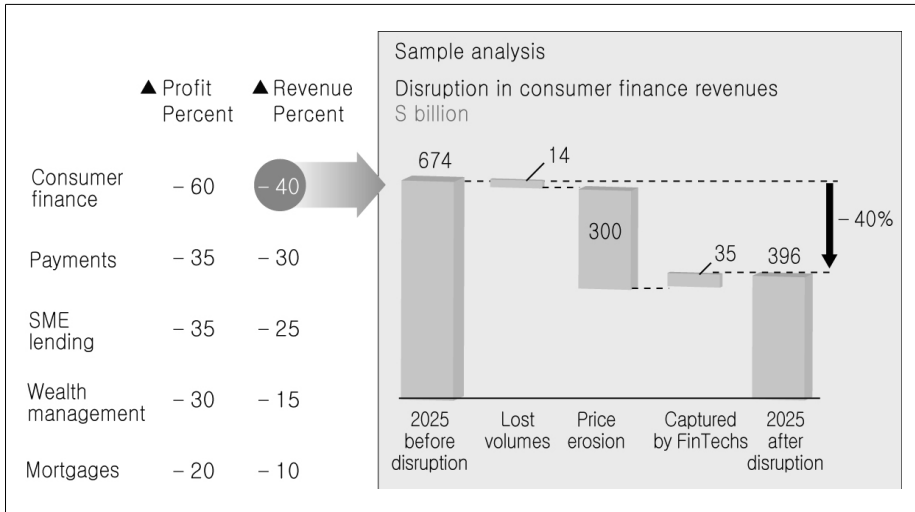
** IT 전략 컨설턴트, 넥스젠엔씨(주) 부장, real0915@ncgs.co.kr

1) 중국에서 11월 11일을 가리키는 말로, 독신절(솔로데이)이라고도 한다. ‘광군’은 중국어로 홀아비나 독신남 또는 애인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1’자의 모습이 외롭게 서있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솔로를 챙겨주는 문화가 확산됨 -네이버 백과사전-

매출을 올렸다. 하루 매출 규모도 굉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초에 1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알리바바의 기술력과 결제 시스템이다. 이것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알리페이 앱의 덕분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금융 및 상품거래가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핀테크에 대한 이해 없이 금융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향후 10년 내 핀테크 기업들에 의한 은행업 매출 및 수익의 대폭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과 가격 우위를 내세워 은행업 고객 기반에 침투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고 고객의 온라인(특히 모바일) 선호가 증가하면서 핀테크로의 고객 이동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금융, 지급결제, 중기대출 및 자산관리 등의 순으로 전통 금융 비즈니스 기반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며 은행업은 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부단한 고객 중심 혁신 및 디지털 기술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

[그림 1] 2025년 핀테크에 의한 은행업 비즈니스별 매출 및 이익 잠식 전망



자료: Mckinsey(2015)

핀테크는 기존의 전자금융과는 다르다. 전자금융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글로벌 은행들은 핀테크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직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무기를 장착한 핀테크 스타트업 업체를 필두로 해서 금융서비스(banking)를 금융회사(bank)에서 분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망 산업적 특색을 바꾸고,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도 달라지면서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법을 통해서 확보되던 신뢰는 기술로 대체되고, 돈보다는 금융 정보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금융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전자금융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핀테크가 부상한 이유는 ‘디지털 혁명’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보급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 환경은 핀테크가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게 된 핵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새롭게 전개된 모바일 인터넷 시대는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디지털 혁신 환경을 조성하였다. 소비자 대부분의 손에 들린 고성능 모바일 기기가 광대역 인터넷 망으로 24시간 연결된 오늘날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은 새로운 디지털 혁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핀테크가 점점 우리 생활속으로 들어오면서 “금융 거래는 정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금융업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금융거래가 IT기업에 의해 재탄생될 경우 전혀 새로운 금융서비스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들에 대응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기업들이 은행의 개별 서비스 영역을 하나하나 혁신하면서 은행서비스를 분해하고 있는 중인데 점점 예금, 대출, 결제, 송금 등 은행의 전통적인 서비스들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앱(모바일 결제, 송금 등)과 소셜 비즈니스 모델(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서 분해되어 서비스화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²⁾

전화나 문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그쳤던 피쳐폰에서 스마트폰 사용 환경으로 바뀐 것처럼

2) 김건우, 「전자금융이 쌓아온 금융 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5. 6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갑작스런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코닥이나 후지필름과 같은 아날로그식 사업 형태는 완전히 디지털 물결을 타고 사라져가고 있으며 출퇴근 시 일간신문을 사서 보던 것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무료 일간 정보지도 잠시 유행하다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완전히 사라짐) 모바일 환경의 포털 서비스 화면에서 뉴스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직접 뉴스를 생산/공유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으며 불과 6~7년전만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수백 년간 전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은행이 인적, 물적 자산의 규모나 영업능력 등에서 비교할 만한 수준도 되지 않는 신생기업들에 의해 순식간에 도태되지는 않을 것이다. 초기에는 틈새(niche) 시장에서 시작하여 은행의 금융서비스들이 조금씩 잠식당해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보수적인 조직인 은행의 부서가 만들어내는 금융서비스와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지렛대 삼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핀테크 서비스의 대결에서 종래에는 후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행서비스이지 은행이 아니다”라고 빌 게이츠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은행서비스는 계속되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오늘날의 은행을 완전히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기존 금융회사의 수익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압력이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는 핀테크 현상에 대해서 <표 1>과 같이 4가지 선택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떠한 선택이 되었든 새로운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금융기업들의 선택은 금융업을 바꾸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표 1〉 핀테크에 대한 주요 해외 금융회사들의 대응 사례

조인트 벤처	M&A	벤처 육성	자체 서비스 출시
BBVA, OnDeck의 대출 심사 기술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대출 개선('14. 5)	BBVA, 인터넷 전문은행 Simple을 1.17억 달러에 M&A('14. 4)	Wells Fargo,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14. 8)	Commonwealth Bank, 증강현실을 이용한 'Property Guide' 앱 출시
핑안보험(중국 최대 보험사), 알리바바, 텐센트와 합작하여 중안보험 설립('14. 2)	Barclays, 남아프리카 P2P 플랫폼 RainFin 지분 49% 인수('14. 3)	HSBC, 소매금융 부분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2억달러 규모 펀드 조성('14. 5)	Bank of America, Cardlytics 기술을 통해서 단골 상점에서 구매시 캐쉬백 서비스 제공
Santander, Funding Circle과 파트너십 체결('13. 7)	Sber Bank(러시아 최대 은행), 터키 Deniz Bank(SNS Banking 운영) 35억 달러에 인수('12. 6)	UBS,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 'Innovation Spaces' 운영('14. 5)	Garanti(터키 최대은행), GPS와 위치기반 SNS 를 이용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는 모바일 앱 출시

자료: Accenture, The Future of Fintech and Banking(2015. 3)

2. 우체국금융 서비스 현황

1) 우체국 전자금융 이용률 분석

비대면 채널(특히 스마트폰뱅킹)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대면 채널보다 크게 높지만 예금 상품의 대부분은 대면채널인 창구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아직 인터넷 판매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14년 기준 대면(약 16.29%) 대비 비대면 금융 거래가 약 83.71%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우체국금융 거래 비중이 점차 비대면 채널로 이동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 거래 중 인터넷뱅킹 거래는 감소했지만 스마트폰 뱅킹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표 2〉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우체국 전자금융 이용률 분석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대면 채널	단말	18.01	16.29	↓1.72
비대면 채널	CD/ATM	52.36	52.23	↓0.13
	폰뱅킹	7.71	7.29	↓0.42
	상담사거래	0.05	0.04	↓0.01
	인터넷뱅킹	9.12	8.20	↓0.92
	기업뱅킹	0.31	0.50	↑0.19
	스마트폰뱅킹	9.95	13.25	↑3.3
	VM모바일	0.19	0.09	↓0.1
	무인공과금	2.31	2.09	↓0.22

자료: 2015. 우체국금융 구조진단 컨설팅 참조

2) 우체국 스마트금융 추진 이슈

- (1) 늦은 시장 진입: 새로운 채널 및 방식의 도입에 있어 시중 은행들에 비해 인터넷뱅킹(10개월), 스마트뱅킹 서비스(약 10개월)가 비교적 늦게 시장에 진입하였다.
- (2) 스마트금융 마케팅 활동 열세: 시중은행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점을 보유했지만, 우체국은 전국에 고른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지역 기준 국민은행(436개), 우리은행(482개), 우체국(252개)로 대도시 지역 중심의 마케팅 활동이 부족한 실정이다.
- (3) 주요 은행 대비 고객층 노령화: 전체 은행권 대비 10~30대 비중이 낮고, 40~60대 비중이 높아 우체국 고객의 노령화로 스마트금융 서비스 확대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선방향

우정사업본부는 시중은행 대비 발빠른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해 우체국 금융시스템에 특화된 핀테크 통합 플랫폼 구축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핀테크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금융/우편/물류의 융합/연계 서비스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요구가 제

기되고 있다. 이제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시중은행들은 핀테크 시장을 더욱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과 정보기술 기업 간에 협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고객한테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편의성 뿐만 아니라 효익을 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간편결제, 송금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 모델을 가진 핀테크 기업을 우체국금융과 제휴해 우체국금융에 적합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II. 핀테크 현황 및 최근 트렌드

1. 핀테크 정의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와 송금을 비롯해 개인자산관리나 클라우드 펀딩 등이 가능한 IT 기반의 새로운 금융기술을 말한다.

더욱 세부적으로 정의하면 핀테크의 중심지인 영국에서는 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 혁신을 전통적 핀테크(Traditional Fintech)로, 혁신적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스 직접 제공을 신흥 핀테크(Emergent Fintech)로 정의하기도 한다.

전통적 핀테크에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모바일뱅킹이나 앱카드 등의 전자금융 서비스가 포함되며, 애플페이나 삼성페이처럼 비금융기업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신흥 핀테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³⁾

핀테크를 전통적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상에 포함되어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조성자(facilitator)로서 포지셔닝하는 반면 후자는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파괴자(disruptor)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전자금융이 바로 전통적 핀테크 기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3) 「핀테크, 전쟁이 시작됐다! 페이팔부터 삼성페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2015. 9

할 수 있고, 후자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핀테크라고 할 수 있다.⁴⁾

〈표 3〉 전자금융과 핀테크 비교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
정의	전자적 채널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BIS)	기술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금융서비스 혁신
Positioning	조성자(Facilitator):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효율성 개선 지원	파괴자(Disrupter): 기존 금융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탈중개화 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
주요 역할	금융 인프라 지원	기존 인프라 우회 또는 대체하여 금융서비스 직접 공급
주요 관련 기업	IBM(IT 솔루션), 인포시스(IT 하드웨어, 선가드(금융소프트웨어), 시만텍(정보보안)	알리페이(지급결제), 트랜스퍼와이즈(외환송금), 킥스타터(클라우드 펀딩), 렌딩클럽(P2P 대출), 웰스프론트(자산운용), 피도르은행(인터넷은행), 코인베이스(Bitcoin)
수익모델	고객 접점은 금융회사가 주도 IT가 금융거래의 후선에서 지원 금융거래 처리 효율 향상	고객 접점을 비금융회사가 주도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후선에서 지원 고객 경험 개선
개념도	자금공여자(대부자)-금융회사(+금융망)-자금수요자(차입자)	자금공여자(대부자)-플랫폼(+인터넷)-자금수요자(차입자)
비고	PC기반, 금융회사/대형IT회사 중심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 중심

자료: Ernst & Young, Landscaping UK Fintech(2014년 8월), LG 경제연구원

이러한 특징들을 반영하여 핀테크를 다시 정의한다면, ‘기술을 핵심 요소로 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이라고 하기도 한다. 핀테크에서 다루는 기술은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은 물론이고,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IoT(사물인터넷), VR(가상 현실)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포괄한다. 기술이 금융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주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되겠지만, 기존 금융회사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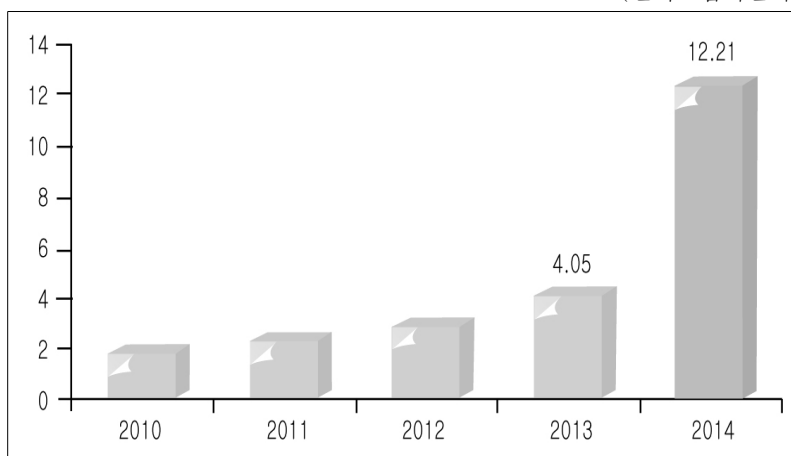
4) 김건우, 「전자금융이 쌓아온 금융 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5. 6

현재는 존재하지 않거나 정의하기 힘든 현상이지만, 기술을 통해서 기존 금융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핀테크라는 현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전자금융이 지점을 통한 대면 거래를 온라인화 시킨 지속적 혁신이라면, 핀테크는 기존 금융 서비스 모델이나 가치사슬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재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믿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된 비즈니스 일 수 있다.’라는 것이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는 핀테크가 금융업에 미치는 파괴적 속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최근 핀테크 현황

전세계적으로 핀테크가 금융업의 메가 트렌드(Mega Trend)로 자리잡으면서 2014년 글로벌 핀테크 기업 투자규모는 12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동 기간 글로벌 벤처캐피탈 투자규모가 6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성장세라고 볼 수 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배경은 이들이 점차 금융산업 내 비주류에서 탈피해 송금, 대출, 자산관리 등 금융기관 서비스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기

[그림 2]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 추이
(단위: 십억달러)



자료: 엑센츄어 자료 참조

때문이며 영국의 대표적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인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는 2011년 출범 후 2014년까지 누적 송금액 5조원 달성, 최근 월 송금액 5억 파운드(약 1조원)까지 도달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잠식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과 스마트폰에 친숙한 젊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⁵⁾들은 향후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기존 금융회사들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밀레니얼 세대의 33%는 향후 5년 내 은행이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50%는 은행보다 IT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해외 금융기관들은 유망 IT기술이나 자원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인수·지분투자·파트너십·육성 등 다양한 모델을 활용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며 핀테크 기업 성장에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부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로 공개하고 핀테크 기업이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 API’⁶⁾ 전략을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다수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종합 금융회사인 씨티그룹은 공모를 통해 외부 개발자들을 선정하고 소매·기업금융, 증권 거래 등 다양한 자체 API를 공개, 이를 활용해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는 경진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⁷⁾

3. 국내 핀테크 추진 현황

1)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금융 오픈 플랫폼 구축 중심으로)

금융위원회는 세계 최초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 이후 핀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 막던 제도적 애로사항을 대폭

5)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청소년기부터 인터넷을 접해 모바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에 능숙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6)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

7) 강서진, 「글로벌 금융회사의 핀테크 도입과 골드만삭스 사례」, KB지식비타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5. 9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핀테크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전산시스템 일부를 공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스타트업이 은행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은행 모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 점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위는 세계최초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 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향후 새롭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하게 출시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에는 17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계획대로 금년 내 TEST-BED를 구축, 내년 상반기 금융권 공동 OPEN API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세계 최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⁸⁾

2) 금융기관 핀테크 적용 사례

최근에는 정부와 협업하는 핀테크지원센터 외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위해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는 은행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다.

두 은행 모두 핀테크 오픈 플랫폼 개발을 천명하고 있는데 오픈 플랫폼은 공공기관의 공개데이터 개방처럼 금융 API를 개방해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금융솔루션 전문업체와 핀테크 오픈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픈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된 금

8) 「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등, 2015. 7

용 API를 스타트업에 제공하는데 제공되는 금융API는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으로 국내 금융사가 직접 구축하는 것은 농협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 입장에선 공개된 API를 활용해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는 기술력 있는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NH농협금융그룹(은행, 보험 등)의 금융 API를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농협금융에서 지속적으로 알맞은 소스코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의 오픈형 핀테크 플랫폼의 이름은 'i-ONE뱅크'라고 하는데 핀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i-ONE뱅크에 쉽게 연결하고 탑재할 수 있도록 확장형 플랫폼 구조로 설계했다. IBK기업은행은 핀테크 기업과 공동 개발한 모델을 적극 적용할 방침인데 i-ONE뱅크에 탑재된 대표 사례 중 하나가 사기거래방지 솔루션을 보유한 '더치트'의 서비스로 수취인 예금계좌가 사기거래 및 보이스 피싱 등에 활용됐는지를 검증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간편결제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와 업무협약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송금하고 결제하는 '토스(TOSS)'도 지원하고 있다. 토스는 스마트폰에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보낼 금액, 비밀번호 3단계만 입력하면 바로 송금이 가능한 앱이다.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닷'과도 손잡았다. 금융거래내역을 메시지로 전송받는 서비스 'IBK ONE알림'에 닷의 점자 스마트워치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닷의 기술이 적용되면 장애인도 입출금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⁹⁾

오픈 플랫폼 구축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핀테크 채널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요 시중은행의 추진 내용은 <표 4>와 같다.

9) 머니투데이, 국내 주요 은행의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현황, 2015. 7

〈표 4〉 국내 주요 은행의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현황

은행명	주요 핀테크 추진 내용
우리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12월 금융권 최초 부서 규모의 핀테크 전담조직 신설 - 업무 범위로는 크게 지급결제·송금, 신기술 발굴, 스타트업 제휴, 인터넷 전문은행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 2015년 상반기 ICT 기업들과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 - 집단지성 활용 사기방지 솔루션 스타트업 더치트와 양해각서를 맺고 사기거래 피해예방 대응 지원 -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채널인 우리핀테크늘품터는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사업화 지원, 외부기관 연계 컨설팅, 핀테크 사업 아이템 경연, 세미나 모임 개최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
KB국민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3월 KB핀테크HUB센터를 출범하고 KB국민은행 3명, KB국민카드 1명, KB투자증권 1명, KB데이터시스템 1명 등 각 계열사에서 선발된 직원 6명이 상주함 - 최근 60여 개 업체와 면담을 진행하고 상담부터 기업공개(IPO)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체계가 강점임 - 핀테크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15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며 투자뿐 아니라 각 계열사와 연계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 예정 - 모바일 결제송금서비스, 모바일 금융보안, 모바일 거래 및 인증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기반금융기술 등 4대 주력투자분야 기업에 지분 투자와 지식재산권 투자 형태로 지원 계획
신한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신한 퓨처스랩'을 가동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회사를 발굴하고, 12주간 멘토링을 제공한 뒤 시장에 선보일 계획
하나·외환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은행 본점에 핀테크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핀테크 원큐랩(1Q Lab)'을 열고 이곳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 기술 핀테크 업체와 얼굴인식 보안 솔루션 업체 등이 입주

자료: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

4. 해외 핀테크 적용 사례

1) 아시아 핀테크 사례

아시아 핀테크 사례의 특징은 첫째, 아시아권의 주요 핀테크 기업은 자국 내의 시장을 넘어선 글로벌진출의 의욕이 강해서 대부분 서비스가 자국을 중심으로 인도·유럽·미국 시장을 목표로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활발히 접촉중이며,

둘째, 국내 상당수의 핀테크 서비스가 결제와 관련된 것에 비해, 서비스 제공의 폭이 상대적

으로 폭넓어 개별 국가의 금융환경의 결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성향이 강하며 결제 이외에도 banking, 투자, 자산관리 등에 균형있게 분포하고 있으며,

셋째, 블록체인과 같은 전자화폐 기반기술은 화폐영역을 벗어나 송금, 투자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분야로 지속 확대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도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비즈니스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도입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관리기법의 경우, 보안수준이 높고 전자화폐 이상의 서비스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송금·결제는 물론, 보안인증까지 다양한 금융 분야의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¹⁰⁾

〈표 5〉 아시아 주요 핀테크 스타트업 서비스 현황

구분	업체명	국가	분야	주요 서비스
금융 서비스	Fastacash	싱가폴	송금	소셜 서비스 활용형 송금 플랫폼 - 인도를 중심으로 서비스 중, 향후 영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업체와 합작 서비스 개시 예정
	Wing	캄보디아	송금	휴대폰 기반 간편송금 - 캄보디아 비도심지역 주요 송금 및 결제수단 - 연 4.5억 달러 거래량, 국민의 10%인 약 150만 고객보유('14년 기준)
	Otonomos	싱가폴	주식거래	블록체인기반 전자주식 발행 및 관리 플랫폼 -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개시, 영국·미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계획 중('16년 이후)
보안 서비스	Bankguard	일본	인증	그림기반 보안카드 - 일본 은행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산 추진 - 현재 싱가포르의 보조 인증수단으로 채택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일본 정부의 지원 하에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접촉 중
	IDGate	대만	인증	거래내역 확인기반 인증 - 대만 최대은행 CTBC와 제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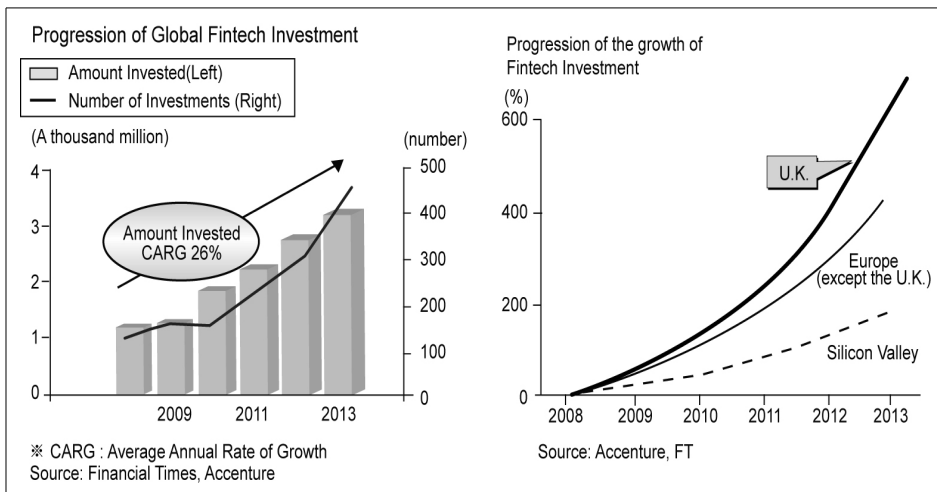
10) 금융보안원 핀테크보안팀, 「아시아 핀테크 기업의 주요 서비스 동향조사 및 분석」, 금융보안원,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2호, 2015. 9.

2) 영국의 금융데이터 공유활성화(OPEN API) 사례

영국은 현 금융산업 성장의 한계와 관련, 금융데이터의 미 공유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하여 미 공유로 인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을 하는 데 어려우며 신규 금융업자는 금융정보소외(계좌관련정보, 거래관련정보, 신용관련 정보 등 금융정보 일체) 등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여 영국 재무부 주도로 '금융데이터 공유'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금융데이터의 OPEN API 제공을 통한 공유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금융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핀테크 기업으로부터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 및 기존 금융권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증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영국 재무부 주도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및 공유활성화 추진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표준화된 형태로 자신의 금융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금융업자도 중소기업대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기관을 통해 평가 기초데이터를 공유하는 추진안을 발표하였다.

[그림 3] 글로벌 핀테크 투자 추이 및 영국의 투자성장률



이런 정책 추진의 주요 기대효과로 오픈 API화를 통한 새로운 금융 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핀테크 업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금융상품 비교, 맞춤형 자산관리, 대출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하고 기존 금융권은 금융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담당이 가능하며 금융데이터 중 개인정보 등을 제거한 통계데이터 및 금융지표(금융상품 비용, 계약조건 등)는 오픈 데이터로의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로 오픈API의 표준화 작업에는 상당한 노력과 업체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권 및 핀테크기업 모두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규정(Data Protection Act)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외 합작투자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등, 국경을 넘나드는 핀테크 활성화 정책들이 가시화 중에 있으므로 영국과 같은 글로벌 핀테크 선진국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관련 주요정책들을 재점검하여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참고 정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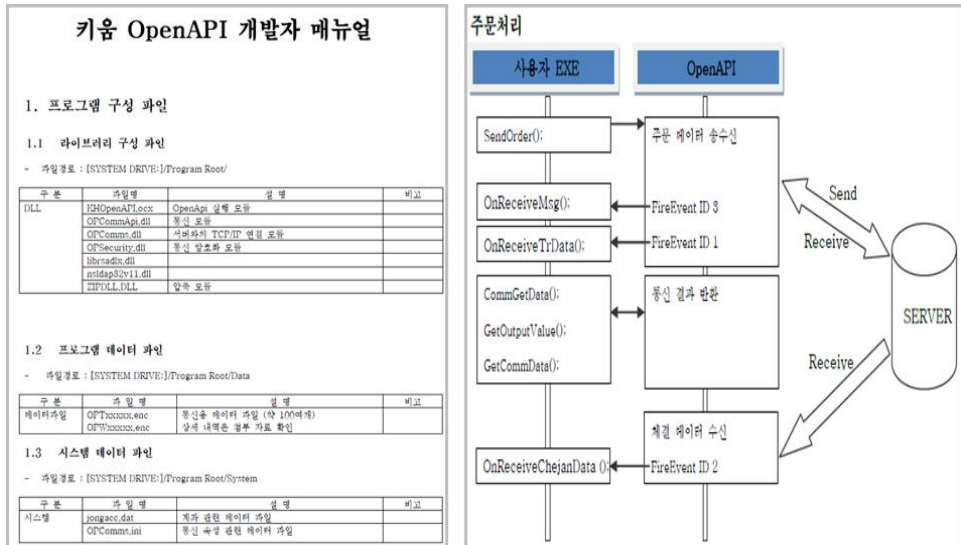
3) 금융권 Open API 활용 사례

(1) 키움증권 오픈 API 제공

키움증권 오픈 API는 고객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키움증권이 제공하는 모듈에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세조회, 잔고조회, 주문 등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매매틀을 제작 활용 가능한 서비스이다.

11) 금융보안원 핀테크보안팀, 「영국의 핀테크 시장 및 주요 정책추진 현황」, 금융보안원, 2015. 11

[그림 4] 키움증권 오픈 API 매뉴얼



자료: 키움증권 홈페이지 참조

(2) 한국예탁결제원 오픈 API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정보, 주식정보, 증권대차정보, 국제거래정보, 파생결합증권정보, 단기금융증권정보 등 7개 분야 40여개 항목의 증권정보를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 2014년 하반기부터 제공하고 있다. ‘증권정보 오픈 API’서비스는 정부 3.0 중점 추진 과제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개시되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오픈 API 활용자는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증권정보 콘텐츠를 스마트폰 앱 등의 형태로 제작해 직접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에게 증권정보 활용을 위한 채널의 다양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금융투자산업 분야에 개발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다양한 신규 서비스 창출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6〉 한국예탁결제원 OpenAPI 제공 예시

서비스명	API 수	API 종류(오퍼레이션)	활용 예상
파생결합 증권정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목코드조회, 발행회사별 발행잔액 조회, 월별 발생잔액 조회, 월별 발행상환 현황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회사별 사모발행, 원금보장발행, 잔액 등은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추정 월별 ELS/DLS/ELW의 조기상환 종목수 등 조회
증권대차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목별 대차거래현황, 주식대차종목순위, 채권대차종목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종목/대차상위종목의 대차거래현황 조회 등을 통해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대차지수공시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탁결제원 주식대차지수에 대한 자본시장의 연구활동 및 타사이트에서 추가 콘텐츠로 활용
주식정보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목코드조회, 주간권리일정, 배당순위 조회, 의무보호예수전체현황, 신규예탁 지정종목조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 모든 발행회사의 기준일, 청약일, 총회일, 배당지급일, 교부일 등의 정보를 제공(마치 버스의 출도착 정보와 유사) 배당 투자 및 자본시장연구 등에 활용
기업정보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회사번호조회, 기업개요, 종류별 주식발행현황, 발행주식수변동내역, 잠재주식수 조회, 회사채/전자단기사채/CP/국내CB/국내BW 등, 주식분포내역(대주주, 소액주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회사의 기업개요는 물론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의 발행잔액 등을 One-stop으로 파악
기타정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용어사전 조회 	
국제거래 정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DR종목시세조회, 종목별 전환가능주식수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일 현재 DR 종목시세, 원화환산가격 등을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
단기금융 증권정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자별 월별 만기금액 조회, 만기별 발행 잔액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자별로 단기금융증권의 월별, 잔존 만기일 수 구간별로 만기금액을 조회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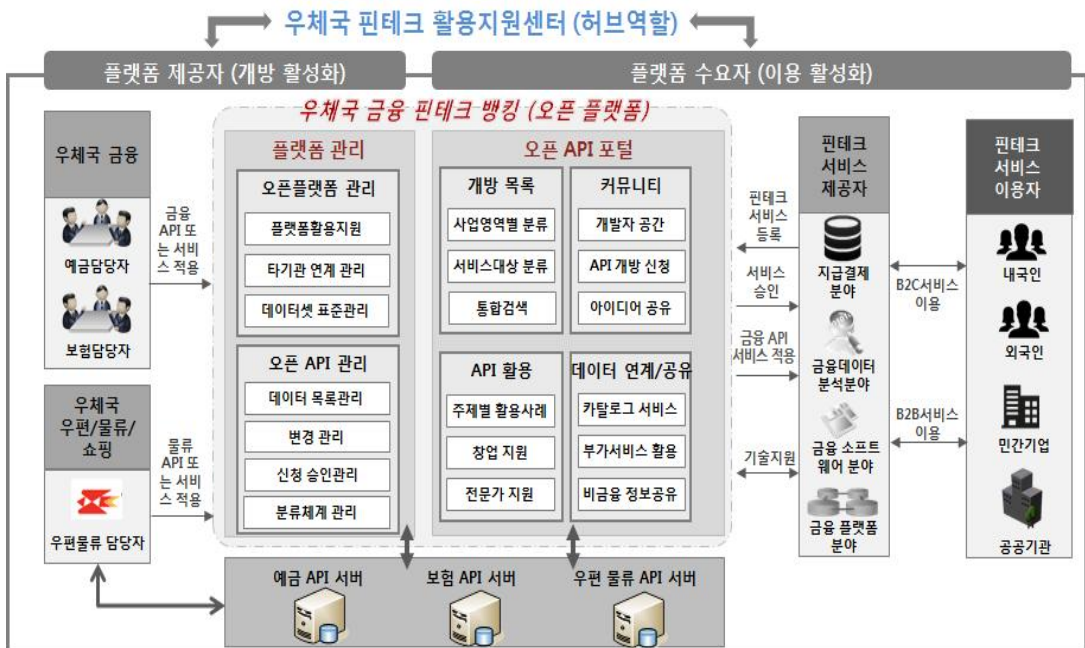
Ⅲ. 우체국 금융에의 시사점

1. 우체국 금융에의 핀테크 적용 방향

1) 우체국형 핀테크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1) 금융 오픈 플랫폼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예금 조회, 이체, 송금, 지급결제 등의 우체국 금융 API 제공 방안 마련, 핀테크 기업 참여 가능한 Open API 기반 서비스 도출 및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급자 주도 banking에서 소비자 주도형 banking(송금,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자산관리 등)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 핀테크 오픈 플랫폼 포털 기능 개념도(안)



(2) 핀테크 기반의 다양한 우체국 맞춤 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

우체국 금융 OPEN API 제공을 위해 REST 방식의 표준 API 인터페이스 제공과 API 개발 명세서의 제공이 필요하며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시험 가동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과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빨리 만들어볼 수 있는 환경 구성 마련이 요구된다.

〈표 7〉 우체국 금융 오픈 API 제공 가능 영역 예시

부문	서비스명	API 종류 (오퍼레이션)	핀테크 기업 서비스 활용 예상
예금	예금상품	예금상품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별 예금상품 비교 예금상품별 금리 비교 예금 신상품 홍보 서비스
	예금 조회	계좌조회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거래내역 조회	금융기관 통합 개인자금관리 서비스
	자금 이체/결제	이체정보, 이체실행	개인 간 간편 이체 및 송금, 간편 결제 서비스
	공과금	공과금 조회, 납부	등록된 공과금에 대한 금융기관, 공공기관 공과금 통합관리 서비스
외환	해외송금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P2P 방식 송금 서비스 중개 국가 간 가상 환전 서비스 등 	
보험	보험상품	보험상품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 별 보험상품 비교 보험상품 별 금리(공시 이율) 비교
	보험조회	계약사항 조회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보험 계약 및 보장관리)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 조회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서비스
기타	우체국 찾기	우체국 조회	우체국 위치 찾기 서비스(ATM, 예금, 우편)
	빅데이터 분석	예금, 보험 관련 정형, 비정형 통계 조회	빅데이터 기반 예금, 보험, 고객 통계 평가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개발 제공

2. 맺음말

결국 핀테크는 단순한 결제 또는 송금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금융 거래과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금융 전반에 걸친 '경험의 혁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발명으로 사용자가 돈을 지불하는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진 것처럼 단번에 쉽고 편리하게 거래 경험을 제공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은 더 이상 거래의 중심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를 끊임없이 연결해주는 매개자이자 조력자인 것이다. 결국 금융전반의 '경험의 혁신'이란,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관점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²⁾

다시 언급하자면 핀테크 오픈 플랫폼은 표준화된 금융 API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은 이를 활용해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API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할 수 있는 계좌이체, 거래내역 조회 등의 기능을 비금융기업이나 개인이 가져다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다. 수많은 핀테크 기업이 이를 활용해 제3의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또한 앞으로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존의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 핀테크 서비스 개발이 쉬워지고 테스트 등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금융 분야에 진출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신규 고객과 만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수익기회를 얻게 되며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정책과 규제는 점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완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보안 및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존 금융권의 보수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2) 노상규, 「핀테크와 금융기관의 역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5권 8호, 2015. 3

〈표 8〉 우체국 금융 핀테크 대응 전략 예시

구분	요약	주요내용
해외 ICT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금융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알리페이, 텐센트, 아마존 등과 국내 결제 서비스 제휴 • 한국인 대상 해외 소액송금 및 중국 관광객의 한국 온·오프라인 가맹점 내 위안화 직접결제 금융서비스를 제공
국내 간편 결제, 송금, IoT 서비스 업체와 제휴	대의 협력을 통한 우체국 핀테크 서비스 모델 다양화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플래닛 ‘페이핀’, LG유플러스 ‘페이나우’ 등과 협력 • 비바퍼블리카 TOSS 외에 간편송금서비스와 연계 협력 • KT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우체국 쇼핑-물류-금융 융합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공동 개발
우체국형 핀테크 지원 기반 구축	우체국 특화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프로세스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형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정부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 및 우체국금융 오픈 금융 플랫폼 통한 생태계 지원 방안 마련
우정사업본부 차원 협력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서비스 지원 조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사업본부 핀테크 사업관련 부서와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센터와 함께 핀테크 서비스 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 • 금융개발원 통한 기술 검증 등 시행

이제 우체국금융은 핀테크 등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시장기회를 주도적으로 발견하고 우편, 물류, 금융의 융합이 가능한 우체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ICT 기업과의 효과적 제휴 및 우체국형 핀테크 기업 육성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김건우, 「전자금융이 쌓아온 금융 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5. 6

금융보안원 핀테크보안팀, 「아시아 핀테크 기업의 주요 서비스 동향조사 및 분석」, 금융보안

- 원,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2호, 2015. 9
- 노상규, 「핀테크와 금융기관의 역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5권 8호, 2015. 3
- 오영석, 「금융권 채널 관련 이슈 및 우체국금융의 대응 방향」, 우정경영연구소, 2015.
- 「핀테크 기반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안」, 우정사업본부, 2015. 1
- 「핀테크, 전쟁이 시작됐다!페이팔부터 삼성페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2015. 9
- 강서진, 「글로벌 금융회사의 핀테크 도입과 골드만삭스 사례」, KB지식비타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5. 9
- 「세계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인프라(오픈 플랫폼) 구축된다」, 제3차 핀테크 지원센터 Demo day 개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등, 2015. 7
- 「국내 주요 은행의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현황」, 머니투데이 2015. 7 기사 참조.
- 금융보안원 핀테크보안팀, 「영국의 핀테크 시장 및 주요 정책추진 현황」, 금융보안원, 2015. 11